

코스피  
▲ +21.41  
(2439.09)코스닥  
▲ +4.77  
(783.28)원·달러 환율  
▼ -7.80  
(1297.10)금리(국고채 3년)  
▲ +0.010  
(3.655)

# 한우 소비촉진... 대형마트, 반값할인 열풍 잇는다

‘소프라이즈’ 연장... 지역마트 복직 소비자, 고물가에 할인 행사 촉각 광주이마트 브랜드한우 매출 ‘쑥’ 롯데온 등 이커머스업체 할인 동참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진행된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의 반값 한우 열풍이 대형마트와 이커머스로 이동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17~19일 전국 농축협 하나마트에서 진행된 한우 할인 판매 행사에 일부 매장에서는 ‘오프런’ 현상이 빚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날 23일부터는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업체가 바톤을 이어받아 ‘반값 한우’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오전 찾은 광주 서구지역의 한 대형마트에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육코너의 한우 할인 판매대에 시민들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주부 이모씨는 “요즘 물가가 하도 올라서 장 보러 나오기가 무서웠는데 한우 할인 소식에 지난 주말에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집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었다”며 “전단을 보니 오늘부터는 국거리리를 세일한다고 해서 사러 왔다”고 전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가공식품 등의 지속적

인 가격 인상으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의 경우 먹거리 가격에 더 예민해지면서 할인 행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브랜드 한우의 매출이 19.2%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이날부터 26일까지 나흘간 한우1+등급(100g/냉장, 국내산) 국거리와 불고기를 평소의 절반가량 가격인 2000원대에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 한우와 함께 돼지고기 행사를 동시에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마트는 무항생제·동물복지 삼겹살과

목심을 이날부터 28일까지 6일간 최대 40% 할인해 판매한다. 열육도야지·듀록·제주 흑돼지 등 특수한 품종의 냉장 삼겹살과 목심도 동일하게 최대 50% 할인이 적용된다. 특수품종 등 다양한 돼지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해 고객의 그로서리 경험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롯데마트는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1등급 한우 국거리·불고기 2990원 행사를 유지하면서 27일부터 3일간은 1+등급 한우를 행사 가격(2990원)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 다.

이커머스 업체도 한우 판매에 가세해 직접 오프라인 현장을 찾지 않아도 배달

로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SG닷컴은 이날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 한우세일’ 동참해 1+등급, 1등급 한우를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이고 롯데온도 이날부터 3월4일까지 1+부터 2등급까지의 한우 불고기·국거리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새벽배송을 진행하는 쿠팡 역시 26일까지 한우 국거리 등을 최대 66% 할인가에 파는 ‘소고기 위크’ 기획전을,마켓컬리도 28일까지 한우를 최대 50% 할인가에 파는 ‘반값 한우’ 특별전을 진행한다.

박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 광주은행,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기금 전달

강진 교육 발전·지역인재 양성

광주은행은 최근 강진군청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강진원 강진군수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해왔으며, 이번에 전달된 2000만원의 장학기금은 강진군 교육 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5%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 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이 이번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속 금리 인상 행렬이 7차례로 마무리 됐다. 또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금리인상 기조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5%대의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물가를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경기 둔화로 금융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고, 긴축적인 금융여건은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물가 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함께 고려하는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의 금리인상 효과와 이에 따른 경기 충격 정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도 지난해 물가에 집중됐던 것에서 이제는 성장 쪽으로 모아지고 있고, 정부 정책 우선순위도 물가 안정에서 경기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

## ‘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

광주전남벤처기업청, 기업 모집 제품개발·제작·마케팅 사업화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등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억~3억원)과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으로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

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 등 3개 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창업지원사업 중 융자 방식 지원을 제외하고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그동안 참여기업은 매출과 고용이 늘고 생존율도 높아 20~30대 청년은 물론 40~50대 중장년 창업자들까지 전 연령에 걸친 관심과 호응으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개사 중 47개사(42.3%)가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를 마중물로 창업 및 성장한 기업이었다.

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해 적합한 주관기관을 신청하면 된다.

광주·전남지역 주관기관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순천대학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지정됐다.

신청 및 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가능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3월 16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는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최종 선정 이후 5월부터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지혜 기자

## 지역건설업계 “광주시, 총수제한 규제 폐지 환영”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광주·전남지역 건설업계가 최근 광주시가 발표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건축물 총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민선8기 광주시의 새 도시정책에 대해 지역건설업계를 대신해 적극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정기집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주택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광주시에서도 지난 민선7기에 시행됐던 규제 일변도의 불합리한 총수제한, 과도한 주택심의제도 등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해 이를 환영한다”며 “그간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작용하고 있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와 준주거지역 용적률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에서 주택사업을 펼치고 있는 김명기 국제건설산업 회장은 “광주시의 총수 규제완화를 기조로 한 새로운 주택정책으로 그동안 단조로운 형태의 아파트 공급에서 탈피해 창의적이고 디자인에 중점을 둔 주거건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재테크 칼럼

‘재테크’의 시대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웬 재테크냐 싶겠지만 작은 돈이라도 굴리면 커진다. 부동산에서 주식, 보험과 펀드까지 경제 칼럼리스트 송호씨와 함께 ‘돈이 되는 이야기’를 쫓아가 본다.

편집자주

투자의 대상은 광범위하지만 개인이나 기관이 주로 하는 투자의 대상은 주식, 부동산, 채권, 코인, 원자재 등 5가지 자산으로 압축할 수 있다. 기관은 전문가 집단

## ‘고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 신중해야

인 만큼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필터링을 거쳐서 위험을 줄이는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개인의 경우 오랜 시간 모은 돈을 무모한 투자로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투자에 실패한 이유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하게도 남탕을 하거나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데 운이 없었다고 시장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투자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개인이 있다

면 가장 먼저 유동성(현금화 가능 자산)에 대한 공부를 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유동성의 다른 이름은 통화량이고 통화량은 금리로 조절한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며 그 때의 경제상황에 맞게 통화량을 컨트롤한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자산이라는 배는 위로 떠 오르고 그 반대로 유동성이 마르면 가라앉는다. 통화량이라는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곳곳에 암초가 드러나기 시작하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고 그 암초를 피해 가는 어렵다.

금리에 대한 이해 없이 투자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은 눈을 가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통화량을 이해한다는 것은 금리의 오름과 내림을 이해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금리를 결정하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금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투자의 타이밍을 판단하는데 큰 도

움이 되고 투자의 세계라는 전쟁터에서 든든한 갑옷 하나를 갖춰 입을 것과 같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금리인상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의 금리는 1년 전에 비해 크게 올라 있다. 위협적인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한, 올해 연말까지는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즉 지금은 물이 빠지고 있는 때다. 물 빠진 저수지에 배를 띄우기는 힘들다. 적어도 채권을 제외한 자산투자, 특히 부동산은 모두가 신중해야 할 때다.

전남일보 페이스북  
facebook.com/jnilbo